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3년 8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행복의 상대성

(코헬렛 7,1-10)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2번 ‘주 하느님 크시도다’ 를 부릅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기쁨이신 주님,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느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십시오.

삶의 이야기

진행자 아래의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세례성사〉



〈고해성사〉



〈혼인성사〉



〈장례미사〉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코헬렛 7장1절에서 10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명성이 값진 향유보다 낮고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거기에 모든 인간의 종말이 있으니 산 이는 이를 마음에 새길 일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얼굴은 애처로워도 마음은 편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이들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잔칫집에 있다. 지혜로운 이의 꾸지람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칭송을 듣는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자의 웃음은 술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 소리 같으니 이 또한 허무이다. 억압은 지혜로운 이를 우둔하게 만들고 뇌물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일의 끝이 그 시작보다 낮고 인내가 자만보다 낫다. 마음속으로 성급하게 화내지 마라. 화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자리 잡는다. “어째서 옛날이 지금보다 좋았는가?” 묻지 마라.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없을 때는

진행자 각자의 신앙 속에서 어떤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언젠가 어떤 강의를 듣는데, 강사가 “자살”이란 단어를 반복해서 빠르게 이야기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반복하다 보니 “자살자살자살자살자 살자살자살자”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조금만 바꾸어 생각하면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부정적이고 극단적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코헬렛은 말합니다. “명성이 값진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 언어적 유희일지 모르나, “명성”은 히브리말로 “셈”이라 발음하고 “향유”는 “셰멘”이라고 발음합니다. 발음은 비슷하지만 조금만 바꾸어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알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리합니다.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46번 ‘사랑의 송가’를 부릅니다.





궁금했어요

**예전에는 8월 15일을 성모몽소승천
대축일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몽소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원죄 없으신 하느님의 어머니, 평생 동정녀 마리아는 지상생활을 마친 후 그 영혼과 육신을 지닌 채 하늘의 영광으로 영입(迎入)되었다”는 교의는 1950년에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서 선포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므로 스스로 세상에 오셨으며 당신의 능력으로 승천하신 반면에 성모님은 하느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인간이시기에 그분의 특별한 은혜에 의해서 하늘나라로 올리움을 받으셨다는 점을 밝힌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성모님의 승천을 ‘몽소’(蒙召)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승천임을 명시하여 예수님의 승천과 뚜렷이 구별되도록 하였습니다. 라틴어와 영어권의 표현에도 예수님의 승천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평생 그리스도에 순응했던 마리아가 땅에서 죽음을 겪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모두 이기셨듯이 성모님을 승천하게 하심으로 죽음에 대한 승리를 거두 전합니다. 성모님의 ‘원죄없는 잉태’가 성모 마리아 신비의 출발점이듯이 하늘에 올림을 받은 승천은 신비의 종착점이라 하겠습니다.

성모님께서 하늘나라로 불리움을 받았다는 사실이야말로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의 영광과 생명의 표지가 되는 기쁜 소식입니다. 교회가 ‘몽소’라는 정확하고 뚜렷한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한 점에 유념하기 바랍니다. 혹여 하느님과 성모님을 동격으로 혼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한 교회의 마음을 잊지 마세요. 이날은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하늘나라로 올려주시’ 일에 한껏 축하드리는 대축일입니다.

ME부부 가득한 성가정의 잔치집

- 용잠본당 1구역 3반 -

하 중 영 마티아

저희 성당은 창원시의 바깥 산 너머 마을 동읍으로 정병산 자락이 길게 드리운 길옆에 있습니다. 주남저수지의 코스모스 길을 따라 툄레길을 걷노라면 새들의 보금자리 갈대숲에서 들려오는 철새가족의 먼 여행 얘기는 언제 들어도 정겹습니다.



소공동체 모임이 있는 날엔 금슬 좋은 부부들이 예닐곱 가정은 예사이고 많으면 열 가정이 넘게 모이기에, 매월 만나면서도 그리운 얼굴들입니다. 사정에 따라 부부가 함께 오지 못하면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소공동체 모임이지만 보통 20여명이 모이고 직장에서 바로 오는 분도 있어 식사까지 준비하다보니 늘 잔치집 같습니다. 음

식준비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주말부부답게 집에서 정성껏 준비한, 갇힌 보리빵이나 남새밭에서 금방 수확한 푸성귀나 과일과 오이며 가지에 죽순과 취나물, 샌드위치, 유정란을 하나씩 가져와 풍성한 식탁으로 맛있게 나눕니다.

복음 나누기를 할 때는 성가정의 형제자매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진지하게 나누다가 마침기도는 정성을 다해 ‘가정을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부부가 함께 모이니 8시에 모여서 자정이 되어 끝나도 가정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에는 1박2일로, 소박한 시골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신부님도 초대합니다. 송년의 밤에는 부부가 한해를 보내는 감사와 희망의 새해를 맞으며, 짝교우는 반드시 부부를 초대합니다. 그 결과 지난해 두 가

정의 짝교우가 영세를 받았고 금년에는 한 가정이 준비 중입니다. 모임 중에 너도 나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부부사이 생긴 일이나 자녀문제가 반모임에서 집단 상담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서로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저희 모임의 울타리가 점차 두터워져 가정의 문제가 반모임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그 방법을 찾게 되는 참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도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모임이 이렇게 따뜻한 가족애로 다져지다 보니 어느 날 슬프거나 축하할 일이 생기면 다투어 달려가는 모습에 다른 모임에서도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달 모임에서는 저희 본당이 서로의 무관심으로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으며 쫓기는 듯 바쁘게 미사에 참여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 부끄럽다면서 「주일미사 20분전에 입실하기와 미사 전,후 성당 입구에서 반갑게 인사하기」를 다짐하고 앞장서 잘 실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모임은 자기 성화를 통하여 성가정의 선교사로서 하느님 사업에 늘 앞장서는 소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용잠본당 1구역 3반 반원들〉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